



한·일 대학생 캠프 나눔의 집 피스로드 현장



피스로드 캠프 참가자 나오키씨와 타카코씨는 2월16일 수요집회에서 '일본정부 공식사과'를 강력히 외쳤다.



피스로드 참가 일본 학생들이 청소 봉사를 끝낸 후 '나눔의 집' 박옥력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역사문제 공감 · 끈끈한 우정 확인

광복 60주년 · '韓日 우호의 해' 맞아 의미 각별

피스로드(peace road)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2002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열리는 역사체험 캠프.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가는 '위안부 문제'를 후세에 전달하고자 기획된 피스로드에 평화를 향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다.



2월 16일 일본대사관 앞 제64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낯은 날씨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며 일본 대학생 나오키(24)씨와 타카코(24)씨가 대사관을 향해 외쳤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일에 눈을 감을 겁니까! 그 과거를 직접 마주한 이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한 미래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에 이어 한국 대학생 이성구(26)씨가 나섰다. 할머니들의 정춘을 빼앗고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자작시 '호소의 시(詩)'를 읊조려 낭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그저 무심히 지나쳐 가는 인근 회사원들의 발걸음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래도 '보상하라'며 열심히 구호를 따라 외치는 30여명의 한국과 일본 대학

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렵잖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수요집회 참석에 앞서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에 대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 이곳에서 일본학생들은 연신 "사우이데스(추위요)"라고 말하며 형무소의 차가운 고문 틀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고문현장을 처음 찾은 양국 학생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 기구와 사형집행 장소를 보면서 놀라움에 몸을 떨었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다 캠프에 참가한 키요에(64)씨는 형무소를 둘러보며 "이렇게 잔인한 역사가 있구나, 정말 미친 짓"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피스로드에서 참관과 체험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피스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역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고자 '나눔의 집'에서 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한 제6회 '피스로드 캠프'. 참가자들은 2월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참석을 통해 할머니들의 이름을 함께 내었다.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참석, 서대문 형무소 관람 전쟁 피해 보상 · 교과서 문제 등 허심탄회한 토론

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는 한국 대학생 16명과 일본 대학생 1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6회 나눔의 집 피스로드(Peace Road) 캠프'가 열렸다.

학생들은 '피스로드'란 말 그대로 미래의 평화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직접 겪은 할머니들을 통해 그 역사를 체험하고자 스스로 찾아왔다.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싶어 하는 열린 열정의 소유자들인 셈이다.

사실 피스로드는 2002년부터 매년 열려왔지만 올해는 광복 60주년에도 '한·일 우호의 해'라 의미가 각별하다. 그래서인지 양국 대학생들은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아득하지만 누군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자신

사문제를 인식할 것인간다.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자국의 역사인식,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도 벌였다.

일본 지도층의 과거사 문제 관련 발언이 계속되고 일본 재판부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패소 판결을 한 이유에 대해 "일본 국내법 미비와 양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성 문제로까지 위안부 문제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토론을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양국의 '교과서 문제'였다.

일본 학생들은 "현재와 같이 극우 세력이 사회전반을 주도할 때는 일선학교에서 일본의 과거사가 왜곡되거나 삭제된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태평양전쟁 당시 전쟁터였던 오키나와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이 때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내 놓았다.

한국 학생들은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제 7차 교육과정 역사책에 서조차 위안부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단 몇 줄"이라고 흥분했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문제에는 조용하다 유독 '교과서 문제'에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학생들이 교과서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잘못된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후세대들을 자꾸 길러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잘 지내보고자 노력하지만 진정 그렇게 될 수 없는 근원적 문제들은 방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 의심이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통역을 맡은 오가사와라(36)씨는 교과서보다 교육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요. 결국 중요한건 마음이지요."

오가사와라씨는 자신이 한국 유학생활동을 통해 알게 된 위안부 문제를 현재 일본 교토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일본 학생들과 재일 한인 2세에게 알리고 있다.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엄연한 차이. 하지만 캠프 참가자들에게

는 오직 '올바른 역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일정 속에서도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여는 청년들의 모임에서 볼 수 있듯 "술 한 잔 하자" "꼭 전화해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깊은 동질감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놓은 것이다.

캠프에서 함께하며 느낀 것을 잊지 않고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지은 것도 양국 학생 모두 똑같았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렇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실천적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현석(25)씨의 말에 수긍하고는 진지하게 다시 토론하면서 이것저것 함께 하고자 하는 한·일 학생들. 이들에게서 위안부 문제와 같이 자꾸만 잊혀져 가는 양국 역사의 굴곡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축적되고 있었다.

3·1절을 앞두고 펼쳐진 나눔의 집 피스로드. 참가 한·일 청년들은 서로 양국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일깨우는 씨앗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글=김강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청운 스님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청운 스님 약력
대한천문동수명리성명학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지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황으로 불교대상수료
대한불교조계종 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대학교 중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경 대한불교조계종 만복사 주지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상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쁜신 분
- 사업 하시는 분
- 이사 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사형통을 기원하시는분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세트) 가격 98,000원
※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

- 재수대길 ■ 소원성취
- FeNi칼도금 ■ 순금도금
- 복돼지액자
- 달마도액자
- 소재: 이크랄액자+pp글라스
- 앞면: 달마도
- 뒷면: 인사형통부 건강부
- 소재: pp글라스 달마도 부직카드
- 규격: 75mm x 50mm
- ※ 사관어금 새겨드립니다
- 소원성취
- 재수대길
- 컷츠아이 핸드프고리
- 소재: 컷츠아이+순금도금

진품달마도 액자 규격: 44cm x 5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 (정정애)